

서울·국제 연합선본제도 협력 강화할 것

김동희 기자 kdh0626@khu.ac.kr
박상희 기자 smtg7475@khu.ac.kr

【서울】지난 21일, 우리신문과 대학의 소리 방송국(VOU) 주최로 ‘제56대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 선출을 위한 후보자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는 KHUBE(큐브) 선거운동본부(선본) 정견 발표, 키워드 질문 및 답변, 언론사 질의응답, 방청객 질의응답, 후보자 최종발언 순으로 이뤄졌다.

큐브 선본의 핵심 공약은 ▲대학 영어 면제 기준 조정 ▲다전공 대기 순번제 도입 ▲인포 21 석차 확인 시스템 도입 ▲대운동장 잔디화 ▲교내 와이파이 점점 및 개선 ▲내장형 콘센트 책상 교체 ▲시험기간 심야 셔틀버스 운영 ▲MASTERPEACE 상표권 등록 ▲분기별 문화 행사 시행 ▲서울·국제 연합 선거운동본부(선본) 제도 확립 ▲총선 후보자 간담회 개최다. 조규영(미디어학 2021) 정후보는 “각 공약은 큐브 선본이 꿈꾸는 경희대학교의 모습을 담기 위해 쉽 없이 고민하며 준비한 것”이라며 “많은 고민의 시간을 거친 만큼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정견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후 키워드 질문 및 답변이 진행됐다. 이는 선본의 가치관을 검증하기 위함으로, 우리신문과 VOU가 사전에 선정한 ‘혁신’, ‘다양성’, ‘발전’, ‘대학의 꽃’ 총 4개의 키워드에 후보자가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식이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혁신’이었다. 조 정후보는 “혁신이라는 말에 걸맞게 여태까지 실행하지 못했던 공약들을 가지고 왔다”며 “대표적으로 대운동장 잔디화와 연합 선본 제도는 매우 혁신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다양성’이었다. 이와 관련 서 부후보는 문화 파트 공약 중 하나인 서울과 국제가 함께하는 합동 응원전을 언급했다. 이어 조 정후보는 “유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내에 다양한 안내 및 경고문을 다국어화 할 것이다”고 전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발전’이었다. 조 정후보는 “대학 영어 면제 기준을 조정하고 조기 졸업 요건 완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을 공약으로 걸었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에 신입 총장 임기가 시작되는데 17대

총장이 만들어 갈 경희대의 4년을 고민하는 것도 발전의 키워드와 연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키워드는 ‘대학의 꽃’이었다. 이에 서 부후보는 다전공 대기 순번제 도입, 조기 졸업 요건 완화, 인포 21을 통한 석차 확인과 같은 학사 공약을 설명했다. 이어 조 정후보는 “문화 행사에서 서울캠 총애포를 기획해 다양한 학우분들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후보자 자질 검증 및 선본 공약 점검이 이어졌다. 각 언론사와 선본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우리신문과 VOU가 각 30분씩 총 1시간가량 질문을 주고받았다. 선본이 제시한 핵심 공약 및 각종 세부 공약의 효용성 및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심야 셔틀버스 운영의 구체적 방식에 조 정후보는 총학의 자체 야간 교내 셔틀버스를 1~2주의 시험기간 동안 무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캠 운행 시간은 자정을 시작으로 새벽 2시까지 30분에 한 번씩 순환하는 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라며 “국제캠퍼스(국제캠)도 마찬가지로 오전 1시부터 3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총 5번 타임을 진행하고 있기에 순환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대운동장 인조잔디화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현재 행복기숙사 앞 대운동장은 녹지구역으로 지정돼 동대문구청 관할하에 있어 구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조 정후보는 “전임 총학에선 동대문구 3개 대학 토론회와 정책 해커톤 등 사업을 진행하며 협력할 수 있는 긴밀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이 과정에서 구의원들께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말씀드렸고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총무관리처 부처장님도 학교 차원에서의 협력을 약속해 주셨다”고 덧붙였다.

연합 선본 제도의 실효성에 관해서 부후보는 “연합 선본 제도의 기대효과는 공동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빠른 논의가 개진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성균관대학교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연합 선본 제도를 참고했고 우리도 서울과 국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다.



① KHUBE(큐브) 선본이 심야 셔틀버스의 구체적 운영 방식 및 외부 업체와의 협의 가능성에 대한 답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임주양 기자)
② 김건아(영어영문학 2022) 씨가 제56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공청회의 사회를 맡았다. (사진=주은서 기자)

조기 졸업 요건 완화의 기준과 적용 대상 및 실현 가능성에 서 부후보는 “교무처와의 사전 면담에서 우리학교 요건이 타 대학에 비해 높음을 공감해 주셨고 이 부분이 대학 재정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정후보는 이어 “해당 기준을 납득할 수 있도록 교무처와 협력해 수요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시행 시기를 설명했다.

이후에는 방청객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구)건물 명칭 변경에 대한 청사진에 서 부후보는 “교내 공간관리위원회에 참관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학사 제도 개선 시기에 서 부후보는 “학사 제도 개선은 의지 문제이기보다는 여러 행정 프로세스가 엮인 문제”라며 “빠르게 요구

하고 신입 총장과 논의 개진 및 관련 유관부서와의 미팅을 진행한다면 빠르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현장 방청객 질의응답에서는 선본이 공약으로 내세운 연합 선본 제도 확립에 관한 질문이 이뤄졌다. 연합 선본 제도의 효용성에 의문이 든다는 점이었다. 이에 조 정후보는 “함께 논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선제적인 공동 공약이 함께 연합 공약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노후화 건물 등 교내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문제가 많은 상황에 한정된 예산 내에서 대운동장 잔디화가 우선 추진될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정후보는 “대운동장 잔디화

는 오래전부터 모든 총학 공약이었다는 점이 중요한 사안임을 반증한다”며 “교내 시설은 앞으로도 학생 지원처 등 학내 유관부서와 함께 협력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공청회는 후보자 최종 발언으로 마무리됐다. 조 정후보와 서 부후보는 “큐브(KHUBE)는 이전까지 외면했던, 혹은 지나쳤던 문제를 정면으로 맞서 학우분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경희대를 위해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투표는 오프라인 전자투표와 온라인(모바일, PC) 투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투표 방법과 기표소 위치는 서울캠 총학 공식 인스타그램(@sketch_khu5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